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1
강원도민일보		강릉시, 주문진 ‘ 북강릉 해상 로프웨이 ’ 조성 본격화	2
강원도민일보	17면	양구군 동면 주민설명회	3
江原日報	27면	다함께돌봄센터협 현장간담회	3
江原日報	19면	“ 고성 관광 2천만시대 도약 원년 만들자 ”	4
ms투데이		‘ 정치개혁 ’ 외치는 청년 정치인?최재민 강원도의원[1/3]	5
ms투데이		‘ 정치개혁 ’ 외치는 청년 정치인?최재민 강원도의원[2/3]	6
ms투데이		‘ 정치개혁 ’ 외치는 청년 정치인?최재민 강원도의원[3/3]	7
江原日報	16면	“ 지역문화 계승 새로운 장 열겠다 ”	8
news1	온라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원도 찾아 ‘ 지방의회 위상 강화 ’ 논의	9
강원네트워		함께하는 나눔 ?서로를 잇는 중앙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	10
江原日報		제19대 춘천문화원 권은석 신임 원장 취임	11
에너지경제		[포토]자연보호중앙연맹, 원주서 간담회 가져	12
江原日報		[동정]강원도의원	13
江原日報	27면	[동정] 최승순(강릉)·박호균(강릉)강원도의원	13
江原日報	27면	[동정] 엄기호 강원도의원(철원)	13
江原日報	27면	[동정] 이지영 강원도의원(비례)	13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원	14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	1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윤미(원주) 도의원	14
강원도민일보	02면	[알림] 내달 2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심포지엄	15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전면수정 최종 확정	16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세종·전북·제주 분권협력 나선다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도 '신경제 국제도시' 재검토 당연	18
江原日報	24면	[The 초점]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정책 시급	19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2023년 01월 13일 (금)
사회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강릉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축구협회(협회장 홍현창)는 미래 강릉을 이끌어갈 18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강원FC Women 창단식을 12일 세인트컨벤션 2층에서 개최했다.

강원FC Women은 U-12는 초등부(성덕초, 12명), U-15는 중등부(하슬라중, 16명), U-18은 고등부(문성고, 정보고, 15명)로 구성된다.

창단식 이후 대한축구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과 강원FC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창단식에는 강릉시축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고, 홍현창 협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창표 강원도축구협회 부회장의 격려사,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선수단 소개와 축하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홍현창 강릉시축구협회장은 “강원도공공형스포츠클럽팀으로 전환 이후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팀 운영을 위해 구단, 학부모, 지도자가 원팀(one team)으로 우수선수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강릉시가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성지로 한걸음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지역

강릉시, 주문진 '북강릉 해상 로프웨이' 조성 본격화

김우열

내년 착공 목표 타당성 용역 착수

강릉 북부권 거점인 주문진지역의 오랜 숙원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강릉시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초 '북강릉 해상 로프웨이(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다.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과 인허가, 부지매입 등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7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직 케이블카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문진항과 영진해변 일원(왕복 약 4㎞)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삭도 유형은 자동순환식(1선식)과 자동순환식(2선식), 왕복식 등으로 공사비와 장·단점, 한계풍속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과 함께 연간 100만명(강릉시 추산)의 시민·관광객이 탑승, 체류형 관광 등 관광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권혁열 도의장은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추진했는데 결실을 보게 됐다"며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수산시장과 도깨비 촬영장, BTS 버스정류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경제 및 관광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케이블카 노선과 지주 지점, 상·하부 정차장, 로프웨이 유형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바다와 해안선, 백두대간을 동시 조망 가능한 해상케이블카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지역 17면

양구군 동면 주민설명회 양구군 동면 주민설명회가 12일 동면복지회관에서 서흥원 군수, 박귀남 군의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 27면

다함께돌봄센터협 현장간담회 강원도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회장: 최현수)는 12일 춘천 퇴계꿈자람나눔터에서 강원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지역 19면

“고성 관광 2천만시대 도약 원년 만들자”

군번영회 주관 신년인사회 각계각층 지역발전 뜻 모아

◇고성군번영회(회장: 한명철) 주관 2023 고성군 신년인사회가 12일 오전 현내면 금강산콘도에서 열렸다.

【고성】고성지역 각계각층이 올해를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위한 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고성군번영회 주관 2023 고성군 신년인사회가 12일 오전 현내면 금강산콘도에서 열려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2023년을 고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2022년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자축하고 연간 예산 5,000억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한명철 군번영회장은 “올해 고향과 주민을 지키는 최첨병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함명준 군수는 “올해는 투자유치사업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일자리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용 군의장은 “올 한 해 군의회는 고성을 북방 유라시아 출발을 위한 시작점으로 만들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특별자치도 시행 등을 통해 고성군의 발전전략이 지역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명철 고성군번영회장과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천열기자

MS투데이

2023년 01월 13일 (금)
정치

‘정치개혁’ 외치는 청년 정치인…최재민 강원도의원

진광찬 기자

[인터뷰] 13년 차 청년 정치인
양당정치 탈피?중대선거구제
윤 대통령 만나 의견 개진해
“강원도 규제 혁파 최우선”

25세 정치 입문 후 6·1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 (사진=최재민 강원도의원)

“강원도 청년이라는 자부심으로 도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은 2009년 25세에 한나라당에 입당해 2011년 한나라당 강원도당 미래세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잔뼈 굵은 정치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38세 나이로 강원도의회에 입성했다.

“세상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2050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바뀌 나가야 할 모든 분야를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새로운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맞이해야죠.”

최 의원은 여야를 초월한 청년 신진 정치인들과 ‘정치개혁2050’를 꾸려 전국을 다니며 정치개혁이 필요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무를 방안을 고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 의원은 수면 위로 떠오른 ‘소선거구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외치며, 양당정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S투데이는 최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새 도청과 도의회가 들어설 부지도 확정됐다. 도와 도의회는 곧 출범하는 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18개 시군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강원특별법 특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 도민만 바라보겠다.”

ms투데이
2023년 01월 13일 (금)
정치

▶청년 정치인으로 바라본 강원도는
“청년들이 떠나는 강원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 먼저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도 늘려야 한다. 얼마 전 강원도를 사랑하는 한 청년을 만났다. 홍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홍천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자체 지원은 열악하다. 이는 춘천을 포함한 도내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대목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을 함께하고 싶고, 할 것이다.”

▶‘정치개혁 2050’에 속해있다. 소개해달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세운 정치개혁 모임이다. 여야를 넘나들어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천하람 전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국회의원·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모임을 시작했다. 현재는 더 많은 청년 정치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속한 '정치개혁2050'. 이들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사진=최재민 강원도의원)

▶최근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진 소선거구제가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 정당이 잘못해야 우리 정당이 잘되는 반사이익 양당정치를 끝내야 한다.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전환 방안을 모으고 있다. 선거법을 만드는 정개특위 국회의원들에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현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많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비례 의석 30석 늘려서 전체 의석을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이 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20석으로 줄이고, 비례 의석을 11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는 안도 있다. 아직은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내용이 다르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권역을 나누는 방법과 형태를 두고 상충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의석인 300석을 유지하면서 3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연합된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단독 혹은 2개가 섞인 기초지자체에서 선거구가 나눠진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비례 의석인 47석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선거구에 대입해 석패율에 따라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배분하면 된다.”

ms투데이

2023년 01월 13일 (금)
정치

최재민 강원도의원(가운데)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최재민 강원도의원)

▶지난달 대통령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를 포함한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잘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원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3번째 특별자치시·도가 강원도다. 관광형 제주와 행정수도형 세종과는 달리 18개 시군의 도민들이 중심이 된 ‘도민 특별자치도’다. 그동안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많은 규제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이 33조원을 넘는다. 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강원도의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서 정말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도민과 함께하며, 강원인의 자부심으로 열심히 의정 생활에 임하겠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지역 16면

◇권은석 제19대 춘천문화원장 취임식이 12일 원내 대강당에서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시장, 김진호 시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지역문화 계승 새로운 장 열겠다"

권은석 춘천문화원장 취임

【춘천】권은석 춘천문화원 신임 원장 취임식이 12일 문화원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권 원장은 "지역의 개발과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춘천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최고의 복지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 자연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문화 계승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시장은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해 춘천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변화 한가운데서 문화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기록하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춘천문화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춘천문화원이 춘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춘천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장, 정재웅 도의원 사회문화위원장, 이승진 도의원,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이대근 전 춘천문화원장, 류종수 도문화원연합회장, 도후 청평사 주지스님, 이희자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17개 시·군 문화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2023년 01월 12일 (목)
경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원도 찾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 논의

같은 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도의원 등과 회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12일 송기헌 국회의원(강원원주을) 지역사무실에서 강원도의회 민주당 의원 등과 만나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이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12일 강원지역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송기헌 국회의원(강원원주을) 지역사무실에서 강원도의회 민주당 류인출 대표의원 등과 만나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측에서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고은정 기획수석, 신미숙 기획부대표, 김철진, 유호준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원주지역사무실에서는 송기헌 국회의원이 직접 마중 나왔으며 류인출 대표의원과 전찬성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이후 광역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17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와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송기헌 국회의원과 류인출·전창선 강원도의원도 남 대표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01월 12일 (목)
강원

강원네트워크

함께하는 나눔 .서로를 잇는 중앙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규자,민간위원장 김태영)는 12일(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체 위원 20명과 심오섭 도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악화된 건강으로 청소를 하지 못해 쌓여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제공하는 등 1인 저소득 가구의 실내 적치를 제거하였다.

최규자 중앙동장은 “협력해주신 협의체 의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함께하는 나눔, 서로를 잇는 중앙동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江原日報
2023년 01월 12일 (목)
종합

제19대 춘천문화원 권은석 신임 원장 취임

권은석 제 19대 춘천문화원장 취임식이 12일 원내 대강당에서 육동한 시장, 김진호 시의장,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권은석 춘천문화원 신임 원장이 취임식이 12일 문화원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권 원장은 지역의 개발과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춘천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 라며 최고의 복지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 자연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문화 계승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 고 말했다.

육동한 시장은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해 춘천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변화한 가운데서 문화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주시는 것도 춘천문화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며 앞으로 춘천문화원이 춘천의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춘천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장, 정재웅 도의원 사회문화위원장, 이승진 도의원,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이대근 전 춘천문화원장, 류종수 도문화원연합회장, 도후 청평사 주지스님, 이희자 춘천시의원 복지환경위원장, 17개 시.군 문화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

2023년 01월 12일 (목)
종합

[포토]자연보호중앙연맹, 원주서 간담회 가져

박에스더 ess003@ekn.kr

▲12일 원주시청 내 도의원회의실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간담회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12일 오전 원주시청 내 도의원회의실에서 제19대 이상명 총재, 김용덕 사무총장, 원제용 강원도의원(연맹 이사)을 비롯해 시·도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ess003@ekn.kr

江原日報
2023년 01월 12일 (목)
정치

[동정]강원도의원

최승순(강릉).박호균(강릉) 강원도의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 2층에서 열리는 강릉소방서 강릉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원제용(원주) 강원도의원은 13일 오후 6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리는 2023원주시나눔봉사단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에 참석.

박윤미(원주) 강원도의원은 13일 오후 2시 반딧불장애인야간학교에서 열리는 반딧불장애인야학 수료식에 참석.

이지영(비례) 강원도의원은 13일 오후 6시 르네블루by워커힐에서 열리는 강원고성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엄기호(철원) 강원도의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동철원농협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철원군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27면

◇최승순(강릉)·박호균(강릉)강원도의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 2층에서 열리는 강릉소방서 강릉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27면

◇엄기호강원도의원(철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동철원농협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철원군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27면

◇이지영강원도의원(비례)은 13일 오후 6시 르네블루by워커힐에서 열리는 고성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12면

원제용(원주) 도의원은13일 오후 6시 원주빌라드아모르에서열리는 2023원주시나눔봉사단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16면

홍성기(홍천) 도의원은13일 오전10시 홍천강변 둔치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홍천강 꽁꽁축제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인물동정 12면

박윤미(원주) 도의원은13일 오후 2시 원주중원빌딩반딧불장애인야간학교에서열리는반딧불장애인야학수료식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종합 02면

알 림

내달 2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심포지엄

새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사는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도와 함께 전국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한 달을 맞는 2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 첫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전국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 사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주최·주관 : 강원도민일보·강원도·강원도민회중앙회·강원연구원
▮후 원 : 강원도의회
▮발 제 : △주제발표 1. '자치재정과 지역소멸 대응,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주제발표 2. '고향사랑 기부제와 재정운용방안'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 △장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총장
▮좌 장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전면수정 최종 확정

특별법 개정안 초안 17일 공개

속보=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강원도만의 특수성과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 강원도가 비전을 전면 수정(본지 1월 12일자 1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초안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도청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현안 및 공약이행계획 보고를 받은 가운데 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재검토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용역 등을 통해 비전 초안을 '신경제 국제도시'로 정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차별성 결여, 구체성 모호 등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도의 청정환경과 4차산업혁명 기반의 경제육성 등 강원도가 추구하는 중점가치와 특징을 복합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비전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11일 폐광지역 및 내륙권역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13일 접경지역, 동해안권역 공청회를 진행, 개정안 초안에 대한 권역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오는 17일 춘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마련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23개 조항을 포함해 모두 19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새롭게 반영되는 특례 조항은 모두 181개로, 분야별로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핵심규제 73개, 전략산업·지역개발 특례 57개, 행·재정 특례 24개, 교육특례 27개 등이 각각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강원도만의 특성 등이 두루 담길 수 있도록 재검토를 진행,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종합 04면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12일 연구원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북연구원과 분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세종·전북·제주 분권협력 나선다

4개 연구기관 업무협약

특별자치도·시 첫 연대

강원연구원과 대전·세종, 전북, 제주연구원이 분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처음으로 체결했다. 국내 특별자치도·시의 첫 연대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12일 연구원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북연구원과 분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식을 통해 강원·세종·전북·제주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하고, 지방시대 실질적 분권을 위한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의 순회 개최, 현안 공유, 공동연구 기획, 상호협력 분야 발굴,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첫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에는 이기우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각 지자체별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경험, 향후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력과 연대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원연구원은 세종·전북·제주와의 공고한 연대협력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 분권을 위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승환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13일 (금)
사설/칼럼 19면

강원도 '신경제 국제도시' 재검토 당연

-특별자치도 비전으론 부적절, 제대로 고민해 내놓아야

강원도가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라는 특별자치도의 비전 수립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신경제 국제도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를 고수해오다가 최근에서야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도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뒤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지는 새해 1월 2일자 신년 기획사설 '특별자치 성공하려면 ① 비전-제주 아류 인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비전 설정부터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신경제'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여년간 사용해온 '국제도시'를 차용한 것도 제주도 아류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제기했습니다. 도가 연구용역에서 나온 비전안을 성급하게 확정할 것이 아니라 심층 논의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은 제대로 주춧돌을 놓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강원지역 특수성을 담은 미래상이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총합해 한 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위 목표 및 특례 발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허투루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도는 각종 산업을 융합해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신경제'로 통칭했다지만, 도민 호감을 얻는데 부족했기에 이번엔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비전에 대한 재검토를 계기로 그동안 강원도가 제시해온 각종 특례 발굴에서도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제주를 베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비단 비전 수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교육' '국제관광' 역시 제주에서 과거 십수년간 개발 전략으로 써먹었을 뿐 아니라 부작용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국제교육 및 교육특구는 경기도 송도 지구와 세종시가 내로라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도 수준 높은 일자리를 확보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와 특구가 모색돼야 합니다. 이왕 재검토하는 비전은 향후 중앙부처와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집중과 선택 방향이 드러나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투자, 규제완화와 같은 일련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1월 13일 (금)
오피니언 24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정책 시급

The 초점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후속 대책 없어 혼란
인력난 정책도 시급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계묘년 토끼해가 밝았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2022년의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려웠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과 세계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등으로 경영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원자잿값 폭등과 극심한 인력난에 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로 인한 물류난까지 더해져 경영환경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웠다.

계묘년 새해에도 악화된 경영환경은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 통화 긴축정책으로 수요 부진과 교역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다시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완화하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상황이 예견된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해 8월17일 '규제개혁대토론회'와 10월13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에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한도 확대를 건의했다. 2022년 6만9천명이었던 규모를 2023년에는 4만1천명이 늘어난 11만명으로 확대토록 해 인력난을 완화토록 한 바 있다.

강원도의 경우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수는 전국 729만 개 사업체 중 22만개로 그 비중이 3.0%밖에 안 되나 지역 소재 기업 대부분(소기업 비중 94.5%)이 영세한 관계로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 오고 있었는데,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몰됨에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이 추가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시기 업무량 폭증이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90일의 인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전통 제조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장년층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의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알리미'와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된 검은 토끼의 해에 지역의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 건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열정과 정성이 지금 당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산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 다시 한번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재도약을 기원해 본다.